

##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거창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 고찰

임의제 • 소현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Archetypal Landscape of Suseungdae Area in Geochang-gun as Regional Tourism Resources

Lim, Eui-Je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 archetypal landscape of a scenic site, Suseungdae area in Hwangsan-maeul village, Geochang-gun by reference research and field surveys and drew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Since Seong Yundong(成允全; 1450-1540) embarked on operating the Suseungdae in Eonari(魚川) in 16th century, Shin Gwon(愼權, 1501-1573) and Im Hun(林薰, 1500-1584) took a major role of establishing the archetypal landscape of the area. Henceforth, numerous scholars had kept exploring the scenery and completing the archetypal landscape of the area until the 19th century. Second, the locations of 50 archetypal landscape elements, including 「Guyeon-dong sipgugyeong(龜淵洞十九景)」 which are dispersed along the Wicheon, has been identified. On the base of this, the archetypal landscape of Suseungdae area is figured out as the ‘Guyeon-dong(龜淵洞)’ area coming down from ‘Cheoksuum(滌愁巖)’ to ‘Byeoram(鼈巖)’. Third, many archetypal landscape elements are from the locations along the river. Among them, the ones named with rock: Am(巖) and Seok(石), which are shapes of turtles or terrapins, take the high rate and so do the ones named with ‘Dam(潭)’, which are waterscape. Fourth, among the cultural landscape elements, there are many garden structures such as Nujeong(樓亭) and Seowon(書院), which are located at the spots of viewing the landscape and the structures like banks, bridges and dams are also included. Furthermore, the letters engraved on the rocks are mainly about the landscape elements and are sometimes about the records of building and operating the landscapes by the people who were appreciating the arts and nature. Based on the rang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chetypal landscape in Suseungdae area from this study, it is needed to take follow-up studies on the guidelines for efficient management by means of classifying the detailed fields so that there are no negative factors conflicting with the adjacent land use.

**Key words** : Hwangsan-maeul, Guyeon-dong(龜淵洞), Scenic Sites(名勝), Wonhak-dong(猿鶴洞)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거창군 위천면 황산마을에 위치한 ‘수승대(搜勝臺)’는 원래 하나의 바위를 지칭하는 이름이지만 ‘거창 수승대’

는 2008년 명승으로 지정된 자연유산으로서 일대의 수려한 계곡 경관을 포괄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洞天)으로 향유하였던 ‘안의삼동(安義三洞)<sup>1)</sup>’ 중 하나인 원학동(猿鶴洞) 계곡에 입지한 커다란 거북모양의 바위가 신령스러운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주변에 정자와 서원까지 갖추어 조선시대 산수유람 문화의 진수를 누렸던 곳이다(Kim, 2008:24). 수승대는 1982년에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대변하듯이 수승대 홈페이지에서 주요 이용시설로 야외수영장, 썰매장, 야영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Tel : 02-6490-2848,  
E-mail : hssso@uos.ac.kr

장, 오토캠핑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매년 7~8월경 수승대 일원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면에 야외무대와 스탠드가 설치되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여름 피서철에 맑은 계곡의 물놀이와 예술·문화 콘텐츠가 결합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문화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된 시설과 공간은 수승대 일원에 산재한 거북바위, 관수루(觀水樓)와 구원서원(龜淵書院), 요수정(樂水亭), 함양재(涵養齋)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이질적 경관을 양산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sup>2)</sup> 이렇게 명승 지정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위락 행태는 선조들이 물려준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의 원형경관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단일 개체의 점적 문화재와 달리 일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명승의 경우, 원형경관 요소들을 파악하여 보존 구역 지정 및 문화재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승의 가치는 그 안에 포함된 유무형의 경관자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위적 경관 변화가 발생하기 전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축적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을 고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 원형경관 요소들을 파악하고 경관적 특성을 도출하여 선조들이 주어진 자연경관을 어떻게 승경으로 인식하였는지 이해하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수승대 일원의 경관 보존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명승 수승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방문자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진정성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가장 먼저 Kang(2002)이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여 안의삼동의 누정과 경승자원들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 Kim(2008)이 원학동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소개하였다. Oh(2010)는 향토사학자로서 명승 수승대의 경관과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여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Choi(2015)는 이황, 조식, 최익현 등 조선의 명사들이 찾은 원학동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Yi and Ryu(2013)는 요수정, 함양재, 관수루에서 수승대를 향한 조망을 고려하여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명승 관리를 위해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2016)는 수승대를 포함한 안의삼동 일원의 명승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파편화된 안의

삼동 일원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대한 분량의 문헌 연구부터 실측에 이르는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 역사자원 하나하나의 점적 요소가 아니라 안의삼동이라는 면적 영역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 결과는 수승대 일원에서 관수루, 요수정, 척수암, 구연이라는 일부 경관 요소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수승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구연동십구경(龜淵洞十九景)」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관 요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경관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수승대 일원에 집중된 원형경관을 이해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서 『거창 수승대 보존관리 종합정비계획(2010)』에서 원형경관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제안하고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보존정비 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마을에 위치한 수승대 일원으로서(Figure 1 참조) 2008년 12월 26일 거창 수승대가 명승 제53호로 지정되면서 한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를 포함한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수승대’라는 상징적 장소가 인식되었던 삼국시대 이후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파악되는 16세기부터 문인들의 승경지 경영과 탐승(探勝)이 이루어진 19세기에 해당되는 조선시대로 한정한다.

연구는 1차적으로 문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먼저 『구원서원지(龜淵書院誌)』와 『요수선생실기(樂水先生實記)』에 기록된 「구연동십구경」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향토 지리지인 『화림지(花林誌)』, 『안의읍지(安義邑誌)』, 『거창군지(居昌郡誌)』, 『위천면지(渭川面誌)』에 수록된 원형경관 요소와 관련 인물의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거창문화원이 발간한 『명승 수승대(2010)』와 『거창군의 마을신앙(2003)』, 『거창의 누정문화(2010)』에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고전종합DB』에서 수승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문집에 실린 기문(記文), 제영(題詠) 등의 기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승대 일원의 경관 경영 및 탐승과 관련된 인물들이 제시한 경관 요소와 정보를 추출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후속 과정으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7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에서 추출한 수승

대 일원 원형경관 요소들의 위치를 비정하여 지형도에 표기하였으며, 사진을 촬영하여 원형경관의 현 상태를 기록하였다. 원형경관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은 ‘수송대’, ‘요수정’, ‘함양재’와 같이 널리 알려지거나 구조물로 확인 가능한 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현장에서 원형경관 요소의 명칭이 바위에 각자(刻字)된 19개소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나머지 원형경관 요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예시(『화림지』 「형승(形勝)」편)한 바와 같이 각 문헌에 기록된 설명을 근간으로 하여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주민과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 척수암(漈愁巖) : 황산마을에 있다. 암면에 ‘신씨사현 유허동문’이라 새겨져 있다(在黃山 巖面刻 慎氏四賢遺墟洞門).
- 야담(夜潭) : 척수암 상류에 있으며 예전에 ‘야천정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在漈愁巖上 古有夜川精舍今廢).
- 자고암(鷗鵠巖) : ‘요수정’의 북쪽 수십 보 거리에 있다(在樂水亭北數十步).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송대 일원 원형경관의 위치와 현 상태를 파악한 후, 세부 원형경관 요소들의 경관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거창 수송대 일원의 원형경관을 이해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향후 보전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Figure 1. The location of Suseungdae

## II. 결과 및 고찰

### 1. 수송대 일원 원형경관의 경영과 탐승

#### 1) 삼국시대의 상징 경관으로서 수송대

수송대가 입지한 원학동 계곡이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이곳은 신라로 가는 백제 사신들을 ‘근심스럽게 송별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수송대(愁送臺)’라고 불렸다. 이는 수송대가 삼국시대부터 상징적 경관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송대’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안의의 구연동은 산수의 뛰어남이 영남의 제일이다. 그중에 한 바위가 있어 형상이 엮드린 거북같이 수중(水中)에 일어나니 위에 백여 사람이 앉을 만하고, 수십 주의 노송이 덮고 있는데, 본래 신라와 백제시대에 사신들이 서로 송별하던 곳으로 수송대라 전해왔다.’<sup>3)</sup>

‘수송대의 옛 이름은 수송이며 유래는 잘 알지 못한다. 혹 이르기를 신라와 백제 때 양국의 사신이 서로 보내며 그 시름을 이기지 못한 연유로 그리 칭하였다.’<sup>4)</sup>

#### 2) 조선시대 전기의 수송대 경영

수송대가 문헌 기록에 나타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 전기의 여러 명망있는 학자들의 소요처로 회자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수송대의 경관을 처음 경영했던 이는 무신이었던 척암(漈庵) 성윤동(成允叢, 1450-1540)이다. 그는 1490년대 초에 함양 백전면에서 안의 황산으로 이거하였는데(Wicheonmyeonji, 1998), 수송대 아래 마을인 ‘어나리(魚川)’에 살면서 수송대 일대의 경관을 즐기며 소요하였다. 수송대 바위와 관련하여 ‘옛날 성윤동 병마사가 돌을 쌓아 사다리를 삼았으며, 또한 축대 위에는 반송이 천년이 넘었는데, 수송대 위에는 단을 쌓은 것이 있다.’<sup>5)</sup>는 기록이 있다. 성윤동이 현재 남아있는 수송대 바위에 오르는 돌계단과 대 위쪽 단을 축조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송대 뒷면에 암각된 ‘척암성공축단대상방천대하(漈庵 成公 築壇臺上 防川臺下)’라는 글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지나긴 세월과 함께 계단 축대는 없어지고 대 위의 축단은 근대까지 자연석 축대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1950년대에 와서 모두 헐어버리고 활석으로 개축하였다(Wicheonmyeonji, 1998).

‘방천대하’에서 알 수 있듯이 성윤동은 수송대 아래

마을 앞 개천의 범람을 막고자 어나리에 제방을 축조하여 치수에도 힘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승대 상류에 석문을 열어 통행로를 만들고, 척수암에도 길을 열어 행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 하였다는 기록<sup>6)</sup>이 있는데, 성윤동이 수승대 영역의 북쪽 문인 ‘석문(石門, 門巖, 葛川洞門)’과 남쪽 문 역할을 하는 ‘척수암’에 처음 길을 낸 것이다. 이것은 수승대를 중심으로 한 ‘구연동’의 영역을 한정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원형경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수승대 일원을 별서로 경영하고 가꾼 이는 요수(樂水) 신권(愼權, 1501-1573)이다. 그는 평생 동안 황산마을에 은거하면서 수승대 일원 원형경관 요소들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특히 그가 조영한 인문경관 요소들은 신권에 의해 수승대가 점유되고 경영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고 있다. 신권은 1540년 수승대 바위 옆에 현재 ‘구연서원’의 전신인 ‘구연재(구연정사)’를 짓고 학문을 연구하였다. 1541년에는 개천 맞은편에 독서처인 ‘함양재’, 1542년에는 수승대 경관의 중심 누정인 ‘요수정’을 지으면서 은거지의 기틀을 닦았다. 또한 요수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구룡폭’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았는데, 이것이 현재의 ‘구연교’로 복원되었다. 이 밖에도 신권은 수승대 아래쪽에 ‘구연보’를 만들어 소나무림인 ‘석송’<sup>7)</sup>을 조성하고, 그 옆 바위를 ‘영귀정’이라고 이름을 붙여 설 곳<sup>8)</sup>으로 삼는 등 수승대 일원 원형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수승대 바위에 새겨진 ‘요수선생축단대상방천대하(樂水先生 築壇臺上 防川臺下)’와 ‘요수단(樂水壇)’이라는 글씨에서 알 수 있듯이 성윤동에 이어 수승대 주변의 경관을 가꾸는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신권이 주도적으로 수승대를 경영한 사실은 ‘육기암’에 새겨진 ‘요수선생장수동(樂水先生藏修洞)’이라는 바위글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권과 동시대 유학자로서 전국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은 처가인 수승대 아래 영송마을에 방문하였을 때 ‘수승대’를 ‘수승대’라고 개칭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제수승대(寄題搜勝臺)’와 「구연서원중건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sup>9)</sup> 퇴계가 명칭을 변경한 일화로 인하여 수승대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이후 저명한 학자와 문인들이 다투어 찾는 계기가 되었다.

‘안음 땅 옛 관아 터에 바위가 물가에 임하여 있는데, 속명이 수승대이고 천석(泉石)이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내가 가 볼 여유가 없음을 한스럽게 여겼다. 또 그 이름이 아름답지 못하여 수승으로 바꾸고자 하니 모든 이가 찬성하였다’

‘퇴계께서 그 대의 이름이 아담치 못함을 저어하여 수승으로 고치고 한편 읍시를 남기시니 대가 이에 더욱 유명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승대 바위 전면에 ‘퇴계명명지대(退溪命名之臺)’라고 새겨져 있다. 이후 조선후기의 많은 문인들이 수승대를 탐방한 후 쓴 글이나 시에서는 ‘수승대’와 ‘수승대’가 함께 사용된다. 이것은 수승대 바위에 ‘수승대’와 ‘수승대’가 크게 압각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은진(恩津) 임씨(林氏) 집성촌인 갈계마을(葛川洞)은 ‘문암(갈천동문)’을 통해 드나들던 수승대 상류 마을로서 원학동의 또 다른 승경지였다. 이곳에 살았던 갈천(葛川) 임훈(林薰, 1500-1584)과 그의 동생 첨모당(瞻慕堂) 임운(林芸, 1517-1572) 등은 신권과 함께 수승대의 경관을 경영하고 향유하였던 유학자들이다. 이는 수승대에 새겨진 ‘갈천장구지대(葛川杖履之臺)’와 ‘요수장수지대(樂水藏修之臺)’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어나리에서 태어난 성윤동의 손자 석곡(石谷) 성팽년(成彭年, 1540-1594)은 임훈의 제자이자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sup>10)</sup>의 스승으로서 이들과 함께 수승대와 척수암에서 소요하며 일생을 보냈다.

수승대 영역의 입구이자 남문인 ‘척수암(요수동문)’에 새겨진 ‘신씨사현유허동문(愼氏四賢遺墟洞門)’은 신권을 비롯하여 청송 신복행(愼復行, 1533-1624), 야천 신복진(愼復振, 1536-1619), 황고 신수이(愼守彝, 1688-1768)를 가리키는데, 신권 이래 거창 신씨 가문의 수승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다. 신복행은 현재 구연서원 입구에 이진된 ‘청송당’을 짓고 독서하였으며, 신수이는 신권, 성팽년과 더불어 구연서원에 배향된 삼선생(三先生)이라고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신복행은 수승대의 원형경관 요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 구연동 영역의 북쪽 ‘별암’ 위 절벽에 새겨진 ‘야천대’와 ‘야천선생유허동(夜川愼先生遺墟洞)’에서 그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신권의 독서처인 ‘함양재’ 아래 ‘복구암’에 ‘야천정사’를 짓고 별서로 삼았다.

### 3) 조선시대 후기의 수승대 탐승

조선 후기 저명한 학자와 문장가들의 수승대 탐승은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수승대 바위에 새겨진 이름은 약 250여 명에 이르며(Oh, 2010; 95), 시문은 신권, 이황, 임훈을 비롯하여 20세기 초까지 18명의 명현(名賢)이 지은 27수에 이른다(Oh, 2010; 76). 이러한 탐승 행위는 수승대가 16세기 이후 영남지방의 중요한 명승으로 인식되고, 많은 유

학자들에 의해 향유된 경관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이는 수많은 유학자들의 문집에 실린 글과 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sup>11)</sup>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파(天坡) 오숙(吳翮, 1592-1634)은 「유수송대기(遊愁送臺記)」<sup>12)</sup>에서 원학동 수송대 일원의 경치를 ‘무릉도원’으로 비유하였으며,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1664-1732)는 전국의 산수를 유람하고 쓴 기행문인 「지행록(地行錄)」<sup>13)</sup>에서 ‘수송대’와 ‘척수암’의 경치를 칭송하고 노래하였다.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 저촌(樛村) 심육(沈鎭, 1685-1753) 등은 동시대에 수송대를 유람하고 감흥을 시로 읊은 유학자들이다.

18세기 문장가로 유명한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풍패정기(風珮亭記)」에서 수송대의 뛰어난 경치를 ‘마치 유리세계(琉璃世界)와 같다’고 표현하였다.<sup>14)</sup> 유리세계는 빛나는 수석(水石)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수송대의 절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은 수송대를 탐승하고 지은 시 「수송대」<sup>15)</sup>에서 당나라의 시인 왕유(王維)의 유명한 별장인 ‘망천별업(輞川別業)’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수송대의 탐승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 기호지방의 대학자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수송대가 영남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칭송하는 시를 남겼다.<sup>16)</sup> 개항기 순국지사이자 덕유산 자락에서 무계구곡(武夷九曲)을 경영하였던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sup>17)</sup>은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sup>18)</sup>에서 ‘척수암’, ‘수송대’를 대표적인 2대(臺)로 칭하고 ‘관수루’, ‘요수정’ 일대의 경관이 ‘매우 기려(奇麗)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영남의 유학자인 만구(晩求) 이종기(李種杞, 1837-1902)는 덕유산 일대를 유람하다가 수송대에 이르러 그 승경에 감탄한 소회를 「유적상록(遊赤裳錄)」에 다음과 같이 남겨 놓았다.

‘수송대에 이르니, 큰 바위 반석이 비스듬히 솟아 올라 엮드린 거북과 같다. 이 개천의 돌들은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북, 뱀, 용, 사자와 같기도 하고, 포개거나 찢개고 깎은 것 같다. 즉, 이 대(臺)는 살아 숨 쉬고 듣는 것 같으니 괴이하다.’<sup>19)</sup>

구한말 문장가인 명미당(明美堂) 이견창(李建昌, 1852-1898)<sup>20)</sup>은 「수송대기(搜勝臺記)」에서 수송대의 유래와 뛰어난 경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송대의 소유권을 두고 신권과 임훈의 후손인 거창 신씨와 은진 임씨

두 집안이 벌이고 있는 세력 다툼을 일러 다음과 같이 꾸짖기도 하였다. 이는 자연경관의 점유에 대한 분쟁의 사례로서 주목된다.

‘내가 보기에는 수송대는 물속의 돌덩어리일 뿐, 밭이나 집, 정원과 같이 주인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어찌 그것을 두고 송사(訟事)를 다툴 것인가. 나는 이미 그곳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았으니, 두 집안의 웅졸함을 가엾게 여긴다.’<sup>21)</sup>

수송대 상류 ‘자암’과 ‘무오동암’에는 ‘무오동(戊午洞)’이라는 명칭과 무오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3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는 무오년인 1918년 혹은 그 이전의 무오년과 관련 깊은 인물들의 수송대 탐승과 관련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세기 이후 신권의 9세 손인 구암(龜巖) 신재익(愼在翼)과 11세 손인 남정(藍汀) 신종식(愼宗軾)은 각각 수송대 상류에 ‘구암’과 ‘남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닐었으며, 이를 자신의 호(號)로 삼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수송대 일원은 삼국시대 때부터 ‘수송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 성윤동이 개척한 이래 신권과 임훈을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의 수송대 경영이 어우러진 결과 원형경관이 형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송대 일원이 영남의 대표적 승경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절묘한 산수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16세기 이후 수많은 유학자들이 탐승하고 그 자취가 누적된 상징적 장소였기 때문이다.

## 2. 수송대 일원의 원형경관 요소

### 1) 「구연동십구경(龜淵洞十九景)」

현재 ‘구연서원’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구연동’이라는 명칭이 문헌상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별적 이름을 붙인 ‘동(洞)’이라는 하나의 영역 개념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곳에 19개의 경(景)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구연동십구경」은 『구연서원지』와 『요수선생실기』에 기록될 만큼 수송대 일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원형경관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명승지정 논의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이는 수송대 일원의 원형경관 영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핵심 정보이다. 구연동에 설정된 열아홉 가지 승경은 요수정(樂水亭), 욕기암(浴沂巖), 풍우대(風雱臺), 영귀정(詠歸亭), 반타석(盤陀石), 연하굴(煙霞屈), 장주갑(藏舟岬), 약어담(躍魚潭), 구암(龜巖), 별암(鰲巖), 연암(鰲巖), 사암(獅巖), 문암(門巖), 복암(樸巖), 원타굴(黿鼉窟), 척수암(滌愁巖),

구룡폭(龜龍瀑), 용우암(龍羽巖), 번계천(翻溪川)이다 (Figure 2 참조).

각각의 경에 대하여 기술된 원문을 토대로 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구연동십구경」은 위천 변에 설정되었으며, 하류인 남쪽 척수암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별암까지 약 1.5km에 걸쳐 분포한다. 「구연동십구경」 중에서 인문경관 요소는 요수정 1개소이며 1805년 복원 시 이전되었다. 1980년대 도로 확장 시 멸실된 ‘문암’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경관 요소들은 현존한다. 「구연동십

구경」에 ‘수승대’가 아니라 수승대 바위 아래쪽 부분을 지칭하는 ‘연하굴’, ‘반타석’, ‘장주갑’이 지정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 기타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 요소

앞서 관련 문헌 기록을 토대로 살펴본 ‘수승대 일원 원형경관의 경영과 탐승’에서 알 수 있듯이 구연동 영역 내에는 「구연동십구경」 이외에 다양한 원형경관 요소들이 있다. 『요수선생실기』, 『구연서원지』, 『화림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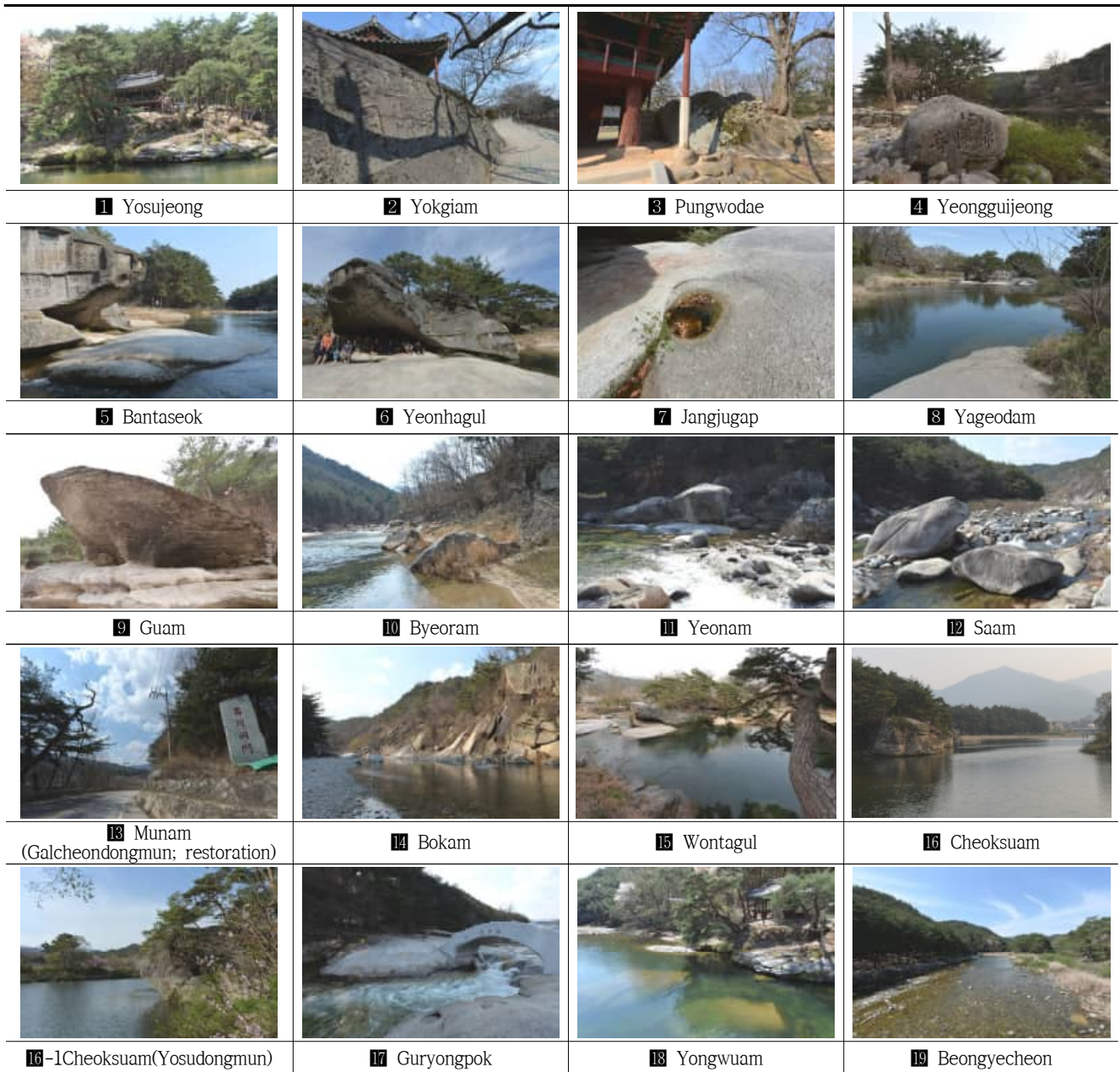


Figure 2. The presence of 「Guyeon-dong sipgyug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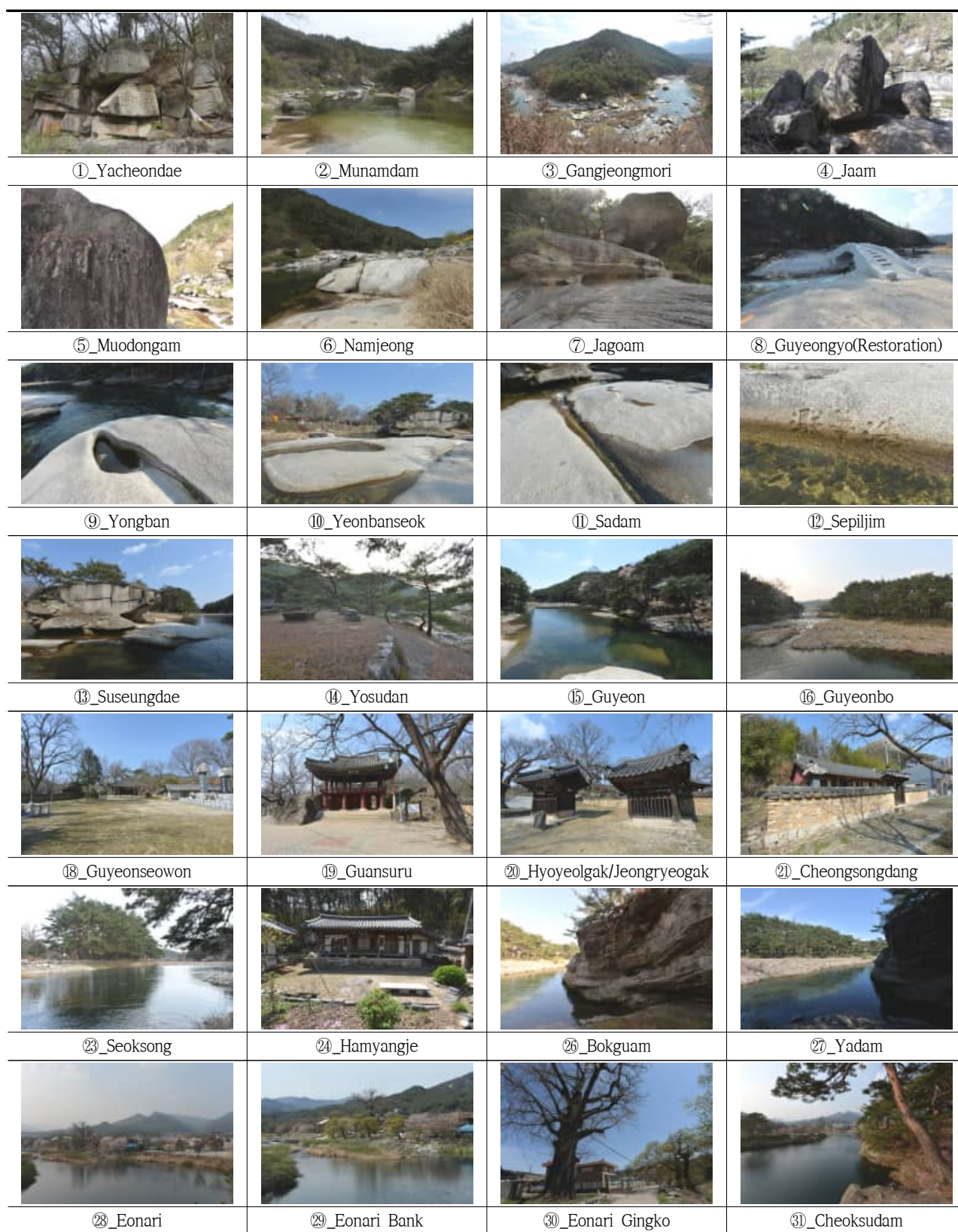


Figure 3. The other archetypal landscape presence of Suseungdae area(except disappeared remains)

창읍지(居昌郡誌)』, 『위천면지(渭川面誌)』에서 문인들이 조영한 경관요소들을 추출하여 상류부터 하류 방향의 물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야천대(夜川臺), 문암담(門巖潭), 강정모리, 자암(鷗巖), 무오동암(戊午洞巖), 남정(藍汀), 자고암(鷗鵠巖), 구연교(龜淵橋), 용반(龍盤), 연반석(硯盤石), 사담(蛇潭), 세필집(洗筆湫), 수승대(搜勝臺), 요수단(樂水壇), 구연(龜淵), 구연보(龜淵洲), 구연재(龜淵齋), 구연서원, 관수루(觀水樓), 효열각/정려각, 청송당(聽松堂), 읍취정(挹翠亭), 석송(柘松), 함양재(涵養齋), 야천정사(夜川精舍), 복구암(伏龜巖), 야담(夜潭), 어나리(魚川), 어나리 제방, 어나리 은행나무, 척수담(滌愁潭)이 분포한다(Figure 3 참조).

이렇게 31개소에 이르는 원형경관 요소는 원하리(院下里) 마을 일대, 수승대 바위와 구연서원 인근, 위천 상류 모퉁이를 지칭하는 강정모리 일대 하천변을 따라 분포한다.

### 3) 수승대 일원 원형경관 요소의 경관적 특성

위천 변을 따라서 분포하는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 요소들은 「구연동십구경」을 포함하여 총 50개소의 경관 요소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5 참조). 이들의 경관적 특성을 별칭, 형상, 상징, 바위글씨, 관련 인물과 기타 정보, 현존 상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2 참조). 원형경관 요소들은 자연경관 요소 36개소(76%)와 인문경관 요소 14개소(24%)로 구분됨으로써 하천 변 입지를 통해 얻어지는 자연경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경관 요소의 대상은 돌로 형성된 모습에 따라 ‘바위(巖/石)’, ‘암벽’, ‘대(臺)’, ‘반석(盤)’, ‘굴(窟)’, ‘갭(岬:穴)’, 물의 형태에 따라 ‘천(川)’, ‘짐(湫)’, ‘연(淵)’, ‘담(潭)’, ‘폭포(瀑)’, ‘정(汀)’과 식물로 소나무숲과 은행나무가 있었다. 특히 ‘바위’에 해당하는 원형경관 요소는 11개소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물과 관련된 9개소 중에서 호소(湖沼)에 속하는 ‘연(淵)’과 ‘담(潭)’이 6개소로 많았다. 특히 집중된 ‘담(潭)’은 승경지를 지칭하는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천의 상류에 형성된 자연 못으로서 경관적, 풍류적 특성을 내포한다(Lim and So, 2016:10).

자연경관 요소의 상징에서 ‘거북(자라)’, ‘용’, ‘뱀’, ‘물고기’, ‘자고새’, ‘제비’, ‘사자’ 등 동물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세필’, ‘머루’, ‘관(冠)’과 같이 선비와 관련된 대상으로도 이름 붙여졌다. 특히 ‘수승대(Figure 3-③)’, ‘복구암(Figure 3-⑫)’, ‘욕기암(Figure 2-②)’, ‘구암(Figure 2-⑨)’, ‘별암(Figure 2-⑩)’, ‘원타굴(Figure 2-⑬)’, ‘구룡폭(Figure 2-⑭)’에서 반복된 ‘거북(자라)’은 주로 바

위의 형상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수승대 일원의 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인문경관 요소로서 요수정(Figure 2-①), 구연재, 구연서원(Figure 3-⑬), 관수루(Figure 3-⑭), 효열각/정려각(Figure 3-⑯), 청송당(Figure 3-⑰), 읍취정, 함양재(Figure 3-⑱), 야천정사 등 누정과 서원이 주요 경관 조망점에 분포한다. 이 중에서 신권이 조영한 구연재와 수승대 아래 있었다고 전해지는 읍취정<sup>22)</sup>, 복구암 위에 있었던 야천정사는 멸실되었다. 그 밖의 구조물로서 요수단(Figure 3-⑭), 구연교(Figure 3-⑧), 구연보(Figure 3-⑮), 어나리 제방(Figure 3-⑳) 등 축대, 교량, 보가 해당된다. 신권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구룡폭포 위의 구연교는 본래 원형은 외나무다리였으나(Wicheonmyeonji, 1998), 2006년 수해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교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수승대 일원의 자연경관과 이질적 경관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나리(Figure 3-㉑)’ 즉 어천(魚川)은 마을 앞 ‘번계천(Figure 2-②)’에 고기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원학동의 수석(水石)이 신령한 지역으로 편안한 도원’이라고 표현되었던 마을이다.<sup>23)</sup>

한편 원형경관 요소의 명칭 중에서 행위나 의도를 표현한 것이 주목되는데, ‘수승(근심으로 보냄)’, ‘척수(시름을 달래)’와 같이 인간의 정성을 대입하거나, ‘요수’, ‘관수’, ‘욕기’, ‘풍우’, ‘영귀’와 같이 옛 성현의 글귀에서 따온 것<sup>24)</sup>이 그것이다. 이것은 선비로서 자연에 준거하며 학문을 탐구하고 수양하려는 의지의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구연동 영역 내 원형경관 요소에는 많은 바위글씨가 산재한다. ‘요수정’, ‘욕기암’, ‘풍우대’, ‘영귀정(Figure 2-④)’, ‘구암정’, ‘야천대’, ‘자암’, ‘무오동(Figure 3-⑤)’, ‘남정(Figure 4-k)’, ‘연반석’, ‘세필집(Figure 3-⑫)’, ‘석송’, ‘함양재’, ‘야천정사(Figure 4-g)’와 같이 해당 경관 요소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바위글씨는 원형경관 요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승대 바위에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데(Figure 4-l), 그 중에서 ‘퇴계명명지대(Figure 4-b)’, ‘갈천장구지대(Figure 4-b)’, ‘요수장수지대(Figure 4-c)’는 이황, 임훈, 신권과 같은 중요 인물들이 풍류를 즐겼던 장소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욕기암’에 새겨진 ‘요수신선생장수동(Figure 4-d)’, ‘야천대’에 새겨진 ‘야천신선생유허동(Figure 4-f)’과 ‘척수암’에 새겨진 ‘신씨사현유허동문(Figure 4-h)’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영귀정’의 ‘요수음영지대(樂水吟詠之臺, Figure 4-j)’, 수승대 암면의 ‘요수단’, ‘척암성공축단대상방천대하(Figure 4-i)’와 ‘요수선생축단상방



천대하(Figure 4-e)’라는 바위글씨로 원형경관의 조성 및 경영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석문(石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문암’에는 ‘갈천동문(葛川洞門, Figure 2-13)’이라는 바위글씨가 있고, ‘척수암(Figure 2-16)’에는 ‘요수동문(樂水洞門)’이라는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 점으로부터 구연동 영역의 경계로서 각각 북문과 남문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조들이 인공적 울타리를 조성하지 않고 자연경관 요소를 이용하여 ‘동천(洞天)’과 같은 특별한 영역을 한정하였다고 알려진 바와 같다.

수승대와 구연서원 주변 반경 100여 미터 이내에 총 50개소 중에서 33개소의 원형경관 요소가 집중되었는데, 이곳이 구연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지속된 물의 흐름이 만든 절벽과 바위 등 승경의 구체적 대상을 제공하는 특별한 경관을 가지는 입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Lim(2001)은 이러한 곡류하천이 지니는 특성들이 전통 승경 인식의 단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것은 원형경관 요소들이 ‘구

암(구암정, Figure 2-9)+자고암(Figure 3-7)+악어담(Figure 2-8)’, ‘야천정사+북구암(Figure 3-26)+야담(Figure 3-27)’과 같이 자연 조망을 위한 건축이 가능한 평평한 터를 제공하는 절벽과 바위, 그리고 아래쪽 깊숙한 물웅덩이가 하나의 경관 패키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거창 수승대 일원 50개소의 원형경관 요소들이 만드는 다양한 경관적 특성을 이해하였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은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2호인 ‘거창 구연서원 관수루’,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423호 ‘요수정’이다. 또한 거창군이 제공하는 수승대 리플렛에서 관광자원이라고 제시한 것은 거북바위, 요수정, 구연서원, 관수루, 그리고 바위글씨로서 연반석과 세필집 뿐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소수의 경관요소들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 분석한 50개소의 원형경관 요소들이 지니는 인문학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관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a_Susongdae/ Suseungdae	b_Toegyemyeongmyeongjidae Galcheonjanggujidae	c_Yosujangsujidae	d_Yosusinsunaengjangsudong
			
e_Yosusunaengchukdan bangcheondaeha	f_Yacheonsunaengyuheodong	g_Yacheonjungsa	h_Sinssisahyeonyuheodongmun
			
i_Cheokamseonggongchukdandaesangbang cheondaeha	j_Yosueumyeongjidae	k_Namjeong	l_Engraved Letters on Suseungdae

Figure 4. The major engraved letters of Susengdae Area

Table 1. The landscape features of 「Guyeon-dong sipgugyeong」 (\*Cultural landscape elements)

No.	Archetypal Landscape Element	Byname	Shape	Symbol	Engraved Letter	Related People / Remarks	Existing Condition
1	Yosujeong(樂水亭)*	Yosujae(樂水齋)	pavilion		Yosujeong	Yosu Sin Gwon(1542) /relocated in 1805	existence
2	Yokgiam(浴沂巖)		rock	turtle	Yokgiam Yosuseonsaengjangsudong (樂水先生藏修洞)	Hwanggo Sin Sui	existence
3	Pungwodae(風雩臺)		platform rock		Pungwodae	Hwanggo Sin Sui	existence
4	Yeonggijeong (詠歸亭)		rock		Yeonggijeong Yosueumyeongjidae (樂水吟詠之臺)	Yosu Sin Gwon Hwanggo Sin Sui	existence
5	Bantaseok(盤陀石)		rock			Chsilhyeol(遮日穴)	existence
6	Yeonhagul(烟霞窟)	Yeonhajeong(烟霞亭) Guigulam(龜窟庵)	cave				existence
7	Jangjugap(藏酒岬)	Janguam(藏酒巖)	hole(穴)				existence
8	Yakeodam(躍魚潭)		pond	fish			existence
9	Guam(龜巖)	Guamjeong(龜巖亭)	rock pavilion	turtle	Guamjeong	Guam Sin, Jaeik	existence
10	Byeoram(鼈巖)		rock	terrapin			existence
11	Yeonam(鵞巖)	Myeongbakhawi	rock	swallow	Samgangoryun (三綱五倫)		existence
12	Saam(獅子巖)	Sajaam(獅子巖)	rock	lion			existence
13	Munam(門巖)	Seokmun(石門) Galcheondongmun	rock	gate	Galcheondongmun (葛川洞門)	Cheokam Seongyundong/ Guyeondong Bukmun	demolition
14	Bokam(幞巖)		rock	crown			existence (assumption)
15	Wontagul(鼉鼉窟)		cave	terrapin crocodile			existence
16	Cheoksuam(滌愁巖)	Cheoksudae(滌愁臺) Yosudongmun (樂水洞門)	platform rock		Yosudongmun (樂水洞門) Sinssisahyeonyuheedongmun (愼氏四賢遺墟洞門)	Cheokam Seongyundong, Yosu Sin Gwon, Cheongsong Sin Bokhaeng, Yacheon Sin Bokjin/ Guyeondong Nammun	existence
17	Guryongpok (龜龍瀑)	Guyeonpok	waterfall	turtle dragon			existence
18	Yongwuam(龍羽巖)		rock	dragon			existence
19	Beongyecheon (翻溪川)	Eocheon(魚川)	stream				existence

Table 2. The other landscape features of the archetypal landscape elements in Suseungdae area (\*Cultural landscape elements)

A: Yosuseonsaengsilgi(樂水先生實記), B: Guyeonseowonji(龜淵書院誌), C: Hwarimji(花林誌), D: Geochanggunji(居昌郡誌),  
E: Wicheonmyeonji(漣川面誌), F: Korean Classics Database(http://db.itkc.or.kr), G: Engraved Letter, H: Belief of Geochang-gun

No.	Archetypal Landscape Element	Byname	Shape	Symbol	Engraved Letter	Related People / Remarks	Existing Condition	References
①	Yacheondae (夜川臺)		platform rock		Yacheondae Yacheonsinseonsaengyuheodong (夜川愼先生遺墟洞)	Yacheon Sin Bokjin	existence	C/E/G
②	Munamdang (門巖潭)	Munbawiso	pond				demolition	E
③	Gangjengmori		cliff(巖壁)				existence	E
④	Jaam(鷗巖)		rock	partridge	Jaam		existence	G
⑤	Muodongam (戊午洞巖)		rock		Muodong(戊午洞)		existence	G
⑥	Namjeong(藍汀)		streamside		Namjeong	Namjeong Sin Jongsik	existence	A/B/G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거창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 고찰

No.	Archetypical Landscape Element	Byname	Shape	Symbol	Engraved Letter	Related People / Remarks	Existing Condition	References
⑦	Jagoam(鷓鴣巖)		rock	partridge		Yosu Sin Gwon	existence	A/B/C/E
⑧	Guyeongyo(龜淵橋)*		bridge			Yosu Sin Gwon	restoration	A/D/E/F
⑨	Yongban(龍盤)		rock(basin)	dragon			existence	A
⑩	Yeonbanseok(硯盤石)		rock	ink stone	Yeonbanseok		existence	A/G
⑪	Sadam(蛇潭)		pond	snake			existence	F
⑫	Sepiljim(洗筆湫)		stream		Sepiljim		existence	G
⑬	Suseungdae(搜勝臺)	Susongdae(愁送臺) Susongam(愁送巖) Yosudae(樂水臺) Amgudae(巖龜臺) Guyeonam(龜淵巖)	platform rock	turtle/ dragon horse	Toegyemyeongmyeongjidae(退溪命名之臺)/ Galcheonjanggijidae(葛川杖履之臺)/ Yosujangsujidae(樂水藏修之臺)	Yosu Sin Gwon Toegy Lee Hwang Galcheon Im Hun	existence	A/B/C/D/E/F/G/H
⑭	Yosudan(樂水壇)*		altar		Cheokamseonggongchukdandaesangbangcheondaeha(漣庵成公築壇臺上防川臺下)/ Yosunseonsaengchukdansangbangcheondaeha(樂水先生築壇臺上防川臺下)	Cheokam Seong Yundong Yosu Sin Gwon	rebuilding	A/C/G
⑮	Guyeon(龜淵)	Gudam(龜潭)	pond				existence	A/B/C/D/E
⑯	Guyeonbo(龜淵洑)*		dam			Yosu Sin Gwon	existence	H
⑰	Guyeonjae(龜淵齋)*	Guyejeongsa(龜淵精舍)	pavilion			Yosu Sin Gwon(1540)	demolition	C/D
⑱	Guyeonseowon*		confucian temple and school			founded in 1694	existence	A/B/C/D/E/H
⑲	Gwansuru(觀水樓)*		pavilion				existence	A/B/C/D/E/H
⑳	Hyoyeolgak/Jeongryeogak*		monument house				existence	A/D/E
㉑	Chengsongdang(聽松堂)*	Chengsongjeong(聽松亭)	pavilion			Cheongsong Sin Bokhaeng/ moved to the present position(1987)	existence	C/D/F
㉒	Eupchwjeong(挹翠亭)		pavilion				demolition	C
㉓	Seoksong(柘松)	Seomsol Seoksongrim(柘松林)	rocks forest		Seoksong	Yosu Sin Gwon Hwanggo Sin Sui	existence	A/B/D/E/F/G/H
㉔	Hamyangjae(涵養齋)*		pavilion		Hamyangjae	Yosu Sin Gwon(1541)	existence	A/B/C/D/E/G
㉕	Yacheonjeongsa(夜川精舍)		pavilion		Yacheonjeongsa	Yacheon Sin Bokjin	demolition	A/B/D/E/G/H
㉖	Bokguam(伏龜巖)		rock	turtle			existence	C/E
㉗	Yadam(夜潭)	Bamsso	pond				existence	A/B/C/E/H
㉘	Eonari(魚川)*	Wonhari(院下里)	village			Cheokam Seong Yundong	existence	E
㉙	Eonari Bank*		bank wood			Cheokam Seong Yundong	existence	G
㉚	Eonari Ginkgo		old tree			Cheokam Seong Yundong Seokgok Seong Paengyneon	existence	D/E/H
㉛	Cheoksudam(漣愁潭)		pond				existenc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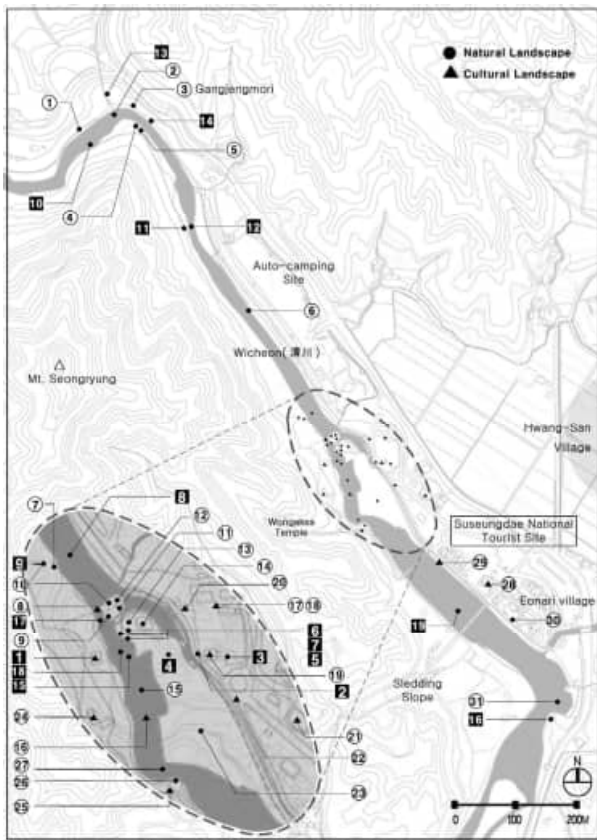


Figure 5. The distribution map of the archetypal landscape elements in Suseungdae area

###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의 자연유산인 명승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 원형경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거창군 황산마을에 입지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승대는 요수 신권과 퇴계 이황의 일화에 한정하여 알려졌지만, 16세기에 성윤동이 수승대 아랫동네인 어나리에서 수승대 경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수승대 일대에서 별서를 가꾼 신권과 갈계마을에서 수승대를 드나들었던 임훈이 원형경관 조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후손인 성팽년, 신복행, 신복진, 신수이가 경관 조영에 기여하였으며, 19세기까지 많은 문인들의 탐승이 이어지면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이 완성되었다.

둘째, 지금까지 수승대는 거북바위로 대표되는 일부

점적 경관에 주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위천 변에 분포된 「구연동십구경」을 포함하는 50개소의 원형경관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승대 일원의 원형경관을 ‘척수암’부터 ‘별암’까지 약 1.5km 거리에 이르는 ‘구연동’이라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원형경관 요소들은 수승대와 구연서원 인근에 집중되었으며, 하천 변 입지를 통해서 얻어진 자연경관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에서 곡류하천에 형성된 바위(巖/石)의 비율이 높았는데, 거북(자라) 형상으로 이름 붙은 바위들이 많았다는 점으로부터 수승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이해하였다. 더불어 경관적, 풍류적 특성을 내포하는 자연 못으로서 ‘담(潭)’이라고 이름 붙은 원형경관 요소들이 많다는 수승대 일원의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인문경관 요소 중에서 주요 경관 조망점에 위치한 누정과 서원 등 원림 건조물이 가장 많았으며, 제방, 교량, 보와 같은 구조물이 포함되었다. 바위글씨는 경관 요소의 이름을 새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던 인물들의 경관 조성 and 경영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승대가 약 400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자연성 높은 경관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경관 경영 내력과 풍류, 완상 행위가 누적된 공간이라는 사실과 그 결과물로 남겨진 다양한 경관 요소들의 위치와 형상을 통해서 수승대 일원 원형경관의 범위와 특성을 이해하였다. 본 연구는 원형경관 고찰에 한정되었지만, 자연경관이 우세한 수승대 일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지역, 휴양경관조성지역, 시각 및 조망권 보호지역 등 세부 영역을 구분하여 인접 토지이용과 상충되는 부정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성과가 명승의 경관 관리 외에도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정보 제공과 같은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1) 조선시대 안의현에 속해 있던 화림동(花林洞), 심진동(尋眞洞), 원학동(猿鶴洞)을 가리킨다.

주2) 캠핑장이나 축제극장, 썰매장 등은 역사문화자원 주변의 배경관점에서 경관저해요소에 해당함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배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분리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6: 178).

주3) 안義之龜淵洞 山水之勝甲于嶠嶺中 有一巖狀如伏龜而臨水 上可

座百有人 數十株老松成蓋 本羅濟使价相送之所 名曰愁送臺.  
(『구연서원지』, 『구연서원증건기』)

- 주4) 臺舊名愁送 不知其所自 或云當新羅百濟時 兩國之使 相送于此 輒不勝其愁 故以稱. (『명미당집』 권10, 『수승대기』)
- 주5) 中古兵馬使成允全 累石爲梯 又築臺上有盤松 不知幾千年 有搜勝臺故築壇臺上. (『화림지』, 『안의읍지』)
- 주6) 行義而滌庵之通道 石門之開路 至今行人尙誦其功. (『창녕성씨문헌지(昌寧成氏文獻誌)』, Oh, 2010: 55 재인용). 在龜淵上 兩石臺立 僅通一線路 兵馬使成允全 巖面刻葛川洞門 (『화림지』, 『형승』, 『石門』). “성천이 강정을 휘돌아 호음산의 뜰비기 시냇물과 맞닿는 곳에 문암담이 신비롭고 소의 동안에 깎아지른 듯한 십여 길 절벽이 있어 그 허리쯤을 돌문이라 한다. 이에 연유하여 ‘문바위’, ‘문암담’ 등의 이름이 생겼고 돌문 위 암벽에 ‘갈천동문’이란 네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으나 1980년대 도로 확장 때 부서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다. 다만 북상면과의 경계 지점인 산비탈에 석주를 세워 표주로 복원하였다”(위천면지, 1998; 명승지).
- 주7) 龜淵拓松林 先生所築. 『구연서원지』, 『수승대사실기(搜勝臺事實記)』
- 주8) 영귀정 바위에 ‘요수음영지소(樂水吟詠之所)’라고 새겨져 있다.
- 주9) 安陰古縣 有石臨溪 俗名愁送臺 泉石最勝 余於是行 以不暇往見爲恨 亦嫌其名之不雅 欲改爲搜勝 諸公皆肯之. (『퇴계집』 별집 권1). 退翁嫌其名之不雅 改以搜勝 并留一律詩 臺於是益名. (『구연서원지』, 『구연서원증건기』).
- 주10) 황산마을 아래 강동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병자호란 때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고향에 내려와 수승대 상류 원학동 모리(某里)에 은거하였다. 그의 강개한 기질과 학통은 명성이 높았으며 현재 그가 살던 동계 고택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주11) 수승대를 탐방하고 그 소회를 한시로 남긴 문인들은 대부분 명망 있는 유학자들인데, 인근에 사는 36인이 지은 121수와 그 외 전국에서 방문한 33인이 지은 42수의 작품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2010: 150-154).
- 주12) 名曰猿鶴 古處士林葛川薰居之 世稱武陵桃源. (『천파집(天坡集)』, 제4편)
- 주13) 『식산선생별집(息山先生別集)』 권3. 「수승대(愁送臺)」, 「자척수암전상(自瀝愁巖轉上)」
- 주14) (전략) 搜勝臺一名愁送巖.. (중략) 如琉璃世界. (『금릉집(金陵集)』 권12)
- 주15) (전략) 曾看輞川畫 峯壑此週遭. (『추재집(秋齋集)』 권4)
- 주16) 嶠南饒水石 搜勝壇名佳. (하략) (『면암집(勉菴集)』 권2. 「수승대」)
- 주17) 연재 송병선은 수승대 북쪽 덕유산 무주구천동 계곡에 무계구곡(武夷九曲)을 설정하고 은거하였다. 이곳의 파회, 수심대 일원은 명승 제56호로 지정되어 있다.
- 주18) (전략) 周覽滌愁搜勝二臺 暨觀水樓 設講于樂水亭 (중략) 搜勝之奇麗. (『연재집(淵齋集)』 권22)
- 주19) 行至搜勝臺 大石盤陀屈起如伏龜然 大抵此溪石多物形 如龜如蛇如龍如獅如積疊如剝削 而是臺則酷似耳息者 可惟也. (『만구선생속집(晩求先生續集)』 권7)
- 주20)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대문장가 아홉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Kim, 2008).
- 주21) 余觀之 臺者 水中之一石耳 非如田宅園囿之物 可以有主也 何訟之有 余既嘉其地之美 而憫夫二氏之陋也. (『명미당집(明美堂集)』 권10)
- 주22) 황산마을에서 태어나 신권, 임훈과 동문수학했던 죽헌 조숙(曹淑, 1504-1582)의 시 「읍취정연향로유감(挹翠亭宴鄉老有感)」에

이름이 전한다(『화림지』 하권, 「제영(題詠)」).

- 주23) 번계천(翻溪川) : 猿鶴爲隣水石村靈區便是一桃源 桃源或恐漁舟至故使翻溪鎖洞門. (『구연서원지』, 『구연동집구경』)
- 주24) ‘요수’는 『논어』 「용야편(雍也篇)」 ‘仁者樂山智者樂水’, ‘관수’는 『맹자』 「진심장구(盡心章句)」 ‘觀水有術 必觀其瀾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에서 인용한 것이다. ‘육기’와 ‘풍우’, ‘영귀’는 『사기』 「열전」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말한 ‘기수(沂水)에서 몸을 씻고 무우(舞雩)의 대(臺) 위에서 바람을 쐬 다음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겠다(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이 논문은 2015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1. Aneuihyanggyo Confucian temple and school, 1966, Aneueupji(安義邑誌), Hoesangsa.
2. Authenticity and Integrity,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46(3): 32-48.
3. Choi, S. G., 2015, The premier site field investigation by scholars in Joseon Dynasty: Wonhak-dong, the best scenic spot in south of Gyeonggi Provi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ess.
4. Geochang Cultural Center, 2003, Folk religion in Geochang-gun, Goechang Cultural Center Press.
5. Geochang Cultural Center, 2010, A scenic site: Suseungdae, Goechang Cultural Center Press.
6. Geochang-gun Journal Compilation Committee, 1979, Geochanggunji(居昌郡誌), Geochang Highschool Press.
7. Gyeongnam Culture Institut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0, The master plan of maintenance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useungdae, Geochang, Geochang-gun
8. Gyeonseowon, 1971, Yosuseonsaengsilgi(樂水先生實記), Cheongwudang.
9. Gyeonseowon, 1997, Gyeonseowonji(龜淵書院誌), Bojun.
10. Hwarimji(花林誌).
11. Jeong, T. J., 2003, Rock, Buddhism and tea culture in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12. Kang, C. G., 2002, A Study on Suseungdae in Geochang, and Neighboring Scenic Beauty Resourc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4): 79-92.
  13. Kim, D. H., 2008, The scenic spots of landscape sightseeing culture: Suseungdae. Wonhag-dong, Geochang, *Munhwajaesarang* 43 : 24-27.
  14. Korean Classics Database(<http://db.itkc.or.k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5. Lim E. J., 2001,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Located in the Meander Cut-off Area, Docto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16. Lim E. J., and So H. S., 2016,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scape Elements from the Chapter 「Sancheon」 of the Volumes Gyeongsang-province in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4(2): 1-15.
  1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6, A study on the techniques of building the traditional space for restoration of garden in Aneuisamdong area.
  18. Oh, P. J., 2010, The Scenic Spot: Suseungdae, Geochang Cultural Center.
  19. Park, G. Y., 2010, Pavilion culture in Geochang, Geochang Cultural Center.
  20. Park J. S., 2003, Belief of Geochang-gun, Geochang Cultural Center.
  21. The Website of Geochang-gun Suseungdae (<http://www.geochang.go.kr/ssd/Index.do>).
  22. Wicheonmyeonji(渭川面誌), Journal Compilation Committee, 1998, (<http://wbook.geochang.go.kr/>).
  23. Yi Y. B. and Ryu J. H., 2013, Feasibility of Scenic Site Protection Area on the Basis of the Concepts of Authenticity and Integrity,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46(3): 32-48.
- 
- Received 19 July 2017
  - First Revised 11 August 2017
  - Finally Revised 20 August 2017
  - Accepted 20 August 2017